



2020-2

# 복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

어서와! 학교는 오랜만이지?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 참여후기

작성자 : \_\_\_\_김 진 혁\_\_\_\_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동기는 솔직히 학점 때문이었으나 점점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 꼭 필요하고 값진 것들을 알려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 학점 관리, 교차지원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특히 복수 전공과 장학금 제도에 대한 설명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는 시점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5년제 건설공학과 간호학과는 다전공 및 복수전공이 안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된다면 프로그래밍과 함께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목 자격증 위주로 공부해볼 계획이고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사무형에 가장 가깝고, 그다음으로는 탐구형과 사회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뭐든 게을러지고 있는 저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취 경험 쌓기를 목표로 프로그램 자격증, 토목기사 자격증, 토익 공부를 할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꼭 시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리검사를 통해 저의 성격별로 어느 직업이 맞고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관습형이 높고 구체적이고 꼼꼼하다는 결과를 통해, 속도보단 꼼꼼함으로 승부를 보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속도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MBTI가 더 정확하고 재밌어 보였으며, 이런 심리검사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직업검사를 통해 저의 흥미 코드는 C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현실형인데 현실 직시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이 관습형과 진취형인데 역시 사무적인 것이 저랑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재핵심역량진단을 하면서 인성 점수와 감성 점수가 2018년 1학기 때는 68.12, 2학기 때는 57.24, 지금은 47.25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과 인성이 안 좋아지고 있으며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성과 감성보다는 지성, 소통과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강점은 책임감과 의사전달 능력, 이해력이고 단점은 나눔과 섬김 및 공감적 수용인데, 이러한 단점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받는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는 강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지만 이를 만드는 것은 상상으로만 해보고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분명 프로그래밍 및 CAD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크리에이터나 영상 제작 혹은 편집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강사님은 뜨기 위해 막 이것저것 올리는 것보다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 필수 스킬 3종 세트'라는 강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엑셀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도 깨알같이 알려줄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너무도 따고 싶은 저에게 컴퓨터 활용 방법 및 엑셀 강의는 진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꼭 적용해볼 것이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CAD,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쓴 값진 자소서 연습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저의 전공을 잘 살려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앞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전공지식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 건설 현장과 토목 현장 관리를 담당하며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간접경험도 많이 쌓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적은 2학년 때 더욱 높게 받을 예정이며 1학년 성적은 중간이상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양 과목들과 건설 전공 관련 지식을 수업을 정말 착실히 들으며 해나갈 수 있었으며 1학년 성적은 중간이상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업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CAD 프로그램을 직접 학교에서 공부하며 프로그래밍과 배워봤고 저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확실한 저의 지원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아직 전역한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구상하고 있는 활동들은 있지만 실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이나 학생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은 잘 해왔던 거 같습니다.

토목기사를 따기 위한 프로그래밍 공부와 자격증 등과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공부들을 (토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얻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배웠던 전공들을 살려서 나중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가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시간

저는 고등학교 땀 이과를 졸업했고 대학교는 건설공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으며 가끔 힘든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성장하는 거라 믿고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채무적인 일을 하는 것도 저의 가장 큰 꿈이자 좋은 직업이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이 없이 일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과목은 건설공학이지만 저는 컴퓨터공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더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 마음도 큼니다.

저의 확실한 취미들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의 시작

저의 취미생활 첫 번째는 이것저것 찾아보기입니다. 여행을 가든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찾아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된 취미는 뉴스 보기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알아가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은 저에게 정말 큰 취미이자 재밌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공을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특기들이 뭔지 작성하겠습니다.

적응력 = Scan + Think + Effort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했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토목 일이나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큰 쾌감들도 느낄 수 있었고 앉아서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일할 때도 재미있었고 아르바이트하면서도 큰 재미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차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든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녹아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단점들과 보완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극복 방법을 작성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자.

저의 단점은 남의 말을 너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것을 장점으로 뽑았었는데 이것이 단점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좀 과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 더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저의 단점을 고치려 정말 노력했고 그 결과 딱딱 중요한 말들만 캐치해서 듣는 좋은 습관이 생긴 거 같습니다. 조금씩 확실한 목표도 생겨나고 있고 저의 성격을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무언가를 할 때 꼼꼼히 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많이 고치고 뭐든 빠르게 하는 습관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며 빠르게 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고 충분히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자동차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교훈을 얻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독립심을 바탕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몰두하여 제 토목 현장에서 적응을 잘해나가겠습니다.

## 참여후기

작성자 : 도혜연

2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을 앞둔 바이오의약학부의 복학생입니다.

휴학을 하며 공부, 여행,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 및 인턴 실무 경험을 쌓고 보람찬 휴학 생활을 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과의 이름이 바뀌어 통합됐다는 소식에도 조금의 혼란스러움과 속상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수강신청 날짜를 알면서도 수강 신청 방법을 잊어 학교에 다니는 후배에게 수강 신청 방법을 묻는다던가, 시간표 짜는 방법을 잊어 A교시가 몇 분 수업이고, 전공 강의인지 교양 강의인지도 잊어버려 학사정보를 찾아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복학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초조해하며 기다리던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학생성정과역량강화] 에서 '슬기로운 배제생활-학사정보편(공통)' 강의를 들었을 때 저는 학교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학사 정보의 유익함은 물론이고 제가 잊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졸업요건이나 수강신청, 학점 등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던 부분들이 있어 지금도 방 한 칸에 메모를 붙여 두고 읽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좋았던 부분은 심리 검사와 직업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점이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유료입니다. 그러나 해당 강좌에서는 검사도 무료인데다 해석 상담까지 해주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검사 결과지와 비교해보니 성인이 된 이후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 예전부터 막연하게 꿈꿔오던 직업들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학습역량강화특강'이었는데, 50분씩만 수강하기 아쉬울 정도로 유용한 강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엑셀, 워드, 피피티 강의를 질적으로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휴학 중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약품물류 사무실에서 해당 단축키를 실무로 배우고 작업하곤 했는데 피피티 강의에서 동일한 정보를 알려주니 신뢰도도 올라갔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이라고 하면 종류를 구분하기도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기 쉬운데, 접근성까지 높여주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학습역량강화특강에서 한 강의의 50분만 수강해도 이수로 인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특강의 어떤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강의 소개부터 마지막 Chapter까지 모두 듣지 않거나, 중간 한 두 강의만 들어 50분을 채우더라도 강의 전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정보를 전부 깨닫고 습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50분만 들어도 된다고 제한을 두니,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학구열이나 호기심을 불태우기 보다는 분량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강의만 듣더라도 시간을 들여 전체 Chapter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들을 듣고 제가 앞으로 복학을 하면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학점 관리를 해나가야 할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 어떤 내용의 자소서를 써보는게 좋을지, 언어 공부와 취미 생활을 병행하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졸업 전 최종 목표'와 자잘한 '일상 계획'들을 세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간 1,2학년 때보다 보람찬 3,4학년 생활을 보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학생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저는 강좌의 수강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지금처럼 심리검사/ 직업검사를 통한 즐거움을, 여러가지 강의나 자소서 써보기를 통한 유익함을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의 배재대학교 복학생 학우들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후기

작성자 : 황채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 도움이 된 점, 개선될 부분, 앞으로 학생성장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주제 등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우수 참여후기 작성자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1월, 4학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좋은 유치원에 취업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휴학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안 사정은 극도로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은 어둡게 물들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몰래 휴학을 신청하였다.

1년간 여러 일을 하면서 지냈다. 3월은 카페, 4월은 호프집, 5월은 판매업 그리고 6월부터 현재까지 키즈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때였지만, 나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일을 즐기며 여러 분야의 사회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나에게는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적합한 학과를 골랐구나.'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키즈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1년에는 꼭 복학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 1월, 복학신청을 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새해에 다짐과 함께 배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때마침 일반 공지에 '복학생 학생성장 프로그램'이 올라왔다. 1년 만의 학교생활이기 때문에 무엇이 변했고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었다.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신청하게 되었다.

'복학생 학생성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점은 진로설계특강 I 부분이다. 이 특강은 AI 안내를 따라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표절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이다. 이제 졸업반인 나에게 취업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말 좋은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특강 덕분에 미리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서 막막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동기가 아주 좋아 복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았다. 장학금지원과정과 학점인정과정으로 나뉘어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특강 중에 학습역량강화는 내 전공이랑 거리가 멀어서 도움이 되는 특강이 몇 없었다. '이걸 왜 들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다. 듣다 보니 흥미를 느끼긴 하였지만, 나처럼 전공과 관련이 없는 특강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특강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복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학교생활에 취업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가끔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성장지원팀으로 전화하곤 했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1대1 상담과 특강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코치가 있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좋아진다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한 관찰일지나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 종사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는 부분도 생기면 좋을 것 같다. 글로 배우고 영상으로 익히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 참여후기

작성자 : 1879108 현희준

저는 이번 '어서와 복학생은 처음이지?'라는 주제의 학생성장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경영학과 18학번 현희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후 관심이 생겨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2년간의 휴학기간동안 학교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는 정보가 많았고,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과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강이 가능한 11일이 되고 LMS에 들어가보니 제 생각보다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물론 학점인정, 장학금 별로 코스가 정해져있었지만 저는 어차피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하나씩 수강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배재생활-학사정보' 편은 제가 생각했었던 지금까지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있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있던 장학시스템이나 교환학생 시스템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으며, '교내외 장학금제도나, 여러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가디언스에서 'Holland'라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상담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며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고, 워크넷이란 홈페이지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두가지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서 내 성향과 내 흥미 직종이 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검사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나와, 왜 두 가지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진로설계가 없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만은 확실하였습니다.

배재핵심역량진단에서는 인성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균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진단받아 그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역량강화특강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단 강의 주제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현재 영상편집에 관심을 가져 프리미어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독학하고 있고, 경영학에서도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영상 제작/편집과 소비자 리서치와 보고서 작성 올인원 패키지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영상편집의 경우 독학이기 때문에, 소비자 리서치와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 높은 강의들이 너무 유용하고 좋았습니다만, '강의를 들을 때 쓸 교재자료나, 요약본 등이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Ai를 통한 자소서 작성 및 첨삭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소개서라 하면, 언젠가는 써야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조차도 안 잡혀 있던 영역이었는데 Ai가 추천해주는대로 작성하니 뭔가 자기소개서의 틀이 잡히는 느낌이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제 스펙과 능력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자기소개서의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자소서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무 VOD 시청의 경우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조언과 이야기였기 때문에 뭔가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 완성도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복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대학생들이라면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복학 전, 여유시간이 있을 때 경험해보았다는 점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참여후기 (장학금 과정)

작성자 : \_장지하\_

## 지원동기

2020년동안 나만의 자아성찰 및 자기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끼는 한해였지만 미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여 저를 다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결되지 않는 코로나 19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되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배재콕 메시지를 보았고,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했습니다.

## 프로그램 후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심리검사, AI기반 자소서 프로그래밍, 흥미에 맞게 들을 수 있는 페스트강의를 수강한 후에 프로그램명에서 왜 학습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습역량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결과 중점)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흥미를 돈구어서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동기유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결되어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보완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활용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습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적합하고 학생들이 잘 활용하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시 자격증 공부할 때에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명

### 1)학습역량 강화 특강

직장인 필수 스킬 3종 세트- 엑셀MAX

5개의 영역으로 강의를 세분화했다는 점과 직업선호도검사 및 심리검사를 기반으로 흥미가 생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흥미뿐만 아니라 필요도에 따라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 흥미가 있었던 강의를 유튜브 관련 영상이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저는 엑셀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강과정에서도 소주제로 나누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강의수준도 유료서비스 못지않게 높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유튜브 v-LOG 촬영을 위해 유튜브 강의 또한 수강할 예정입니다.

### 2)슬기로운 배재생활-학사정보편

학교 장학금, 휴학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좋았으나 자신의 해당 부분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 힘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각 소주제로 나누어서 세분화한다면 자신의 필요도에 따라 영상을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선택한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서 킨더조이 팀의 해외여행 영상이 재미있었고, 호기심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설마 나도 갈수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관련된 장학정보 및 지원신청 정보를 영상에서 다시 찾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아쉬운 점

저의 경우 일을 완수하고 결과물을 확인하여 성취욕구를 더욱 느끼는 편입니다.

각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나서 수강완료라는 단어 혹은 프로그램의 진행도를 LMS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1월 11일 오후12시 수강임에도 불구하고 미개설 된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